

‘화진포 지키미’ 이명철 현내면 변영회장

“평생 화진포 곁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나라 어디를 다녀 봐도 화진포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항상 포근하게 감싸주고 품어주며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화진포입니다.”

이명철 현내면변영회장(사진)은 어느 누구보다 화진포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가득하다.

이회장은 현내면 대진 출신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20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화진포에서 최초로 수상레저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기 2년의 현내면 변영회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 그는 화진포를 어떻게 하면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삶의 ‘화두’라고 했다.

실제로 이회장은 화진포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며, 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창안해 행정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화진포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회장은 “화진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호수주변에 산책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로가 지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화진포를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한다”며 “화진포가 대대로 명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화진포를 곁을 지키며 보존에 힘쓰겠다”고 했다.



기와 잔잔한 호수가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된다.

이제 이승만 별장 앞 공원에서 차를 타고 거진방향으로 200m정도 진행하면 김일성별장(화진포의 성)이 있는 주차장이 나온다. 차에서 내려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별장으로 올라간다.

김일성 별장은 1938년 독일인 H. 베버가 지었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이 처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와 함께 여름 휴양지로 사용했다. 공산당 간부들도 이용했다. 1948년 당시 6살이던 김정일이 이곳의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1964년 육군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재건축하였고, 1995년 개·보수해 장병들의 휴양 시설로 사용했다. 현재 내부에 한국 전쟁과 북한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입장료는 개인기준으로 성인 2천원, 소인 1천 5백원이다.

주변에 횃집·막국수 식당 즐비

산중턱에 있는 김일성 별장에서 바라보는 화진포의 바다는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한다. 속이 흰히 비치는 에메랄드 빛 바다 풍경과 화진포해변, 호수가 한 눈에 들어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그야말로 명당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화진포는 현대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흔적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이다. 만약 화진포가 지금 북한 땅에 속해 있다면 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땅인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이 잘 보존되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본다.

화진포의 첫 코스인 화진포해변에서 마을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이승만 별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김일성 별장에서는 멀리 보이는 푸른 동해

바다를 보며 희망의 싹을 틔어본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자연의 품이 있기에 힘겨운 삶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고 조물주가 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속에서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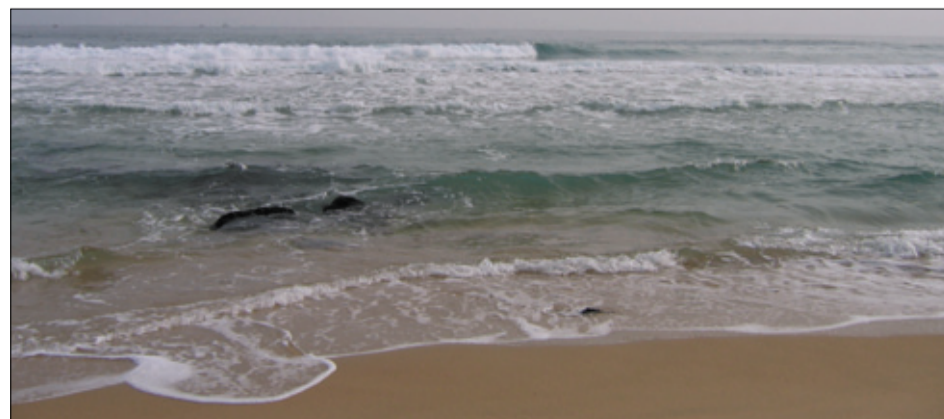
화진포의 자연에 흠뻑 도취되어 발걸음을 바빠 움직였더니 배에서 고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여행의 맛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화진포 주변에는 초도항과 대진항, 거진항 등이 있다. 이 곳에서는 동해안에서 잡힌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와 매운탕, 겨울이 제철인 명태지리, 곰치국, 도치알탕, 노루묵 등을 맛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바닷가 앞에 자리 잡고 있어 바다를 보며 싱싱한 해산물과 싸한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 사는 맛이 이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또 인근에 시원한 동치미 막국수와 편육, 동동주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막국수 집에 가면 먼저 편육과 동동주를 주문해 한 잔하고 난 뒤 시원한 동치미 막국수를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어진다. 박포수가든, 화진포 막국수, 우리 식당, 화진면옥 등이 유명하다.

이렇게 하루 화진포에서 자연의 보약을 공급받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① 화진포 인근에 위치한 초도항 모습. ② 화진포 쪽에서 바라보면 섬의 형상이 거북이와 같이 보여 금구도(金龜島)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 광개토태왕릉이 금구도에 있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③ 화진포 해양박물관. ④ 화진포의 성(김일성 별장) ⑤ 화진포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화진포에는 청동기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선사 유적이 곳곳에 분포해 이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중요한 생활터전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 유적은 아직 개발 진행 중인 관계로 가장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화포리 8호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형태가 완전한 청동기 시대의 북방식 지석묘로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